

#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문 남 철\*

## The Enlargement of EU and the Flows of Direct Investment within EU

Nam-Cheol Moon\*

**요약** : 유럽연합은 확대과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유럽통화통합(EMU)의 출범을 통해 단일 경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강화에 따른 역내기업들의 투자지역 선택 범위의 확대로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지역간의 흐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일시장 출범 이후 급격히 성장한 직접투자의 역내 통합은 북 유럽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둘째, 산업별 역내 직접 투자는 단일시장 형성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내 직접투자 유출·입은 남 유럽연합국들이 서비스업부문의 유출과 제조업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보인 반면에 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유출과 서비스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나타내었다. 셋째,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투자는 북 유럽연합국들은 석유·화학, 금속·기계, 음·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 유출·입의 집중을 보인 반면에 남 유럽연합국들은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 역내 투자 유출·입의 집중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종별 고른 투자경향을 보였다.

**주요어** : 유럽연합, 역내 직접투자, 남-북 관계, 지역주의

**Abstract** : EU is enlarging geographically by the process of expansion and is intensifying the economic bloc by the formation of European Union and European Monetary Union. This situation increases the direct investment in the intra-EU members and changes the intra-EU flows.

First, EU is formed by the economic geographical space of the North and the South with a differentiation of economic factors and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North played a leading role for an augmentation of the intra-EU direct investment after the formation of EU. Seco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intra-EU direct investment by industry was increased remarkably. In the intra-EU direct investment flow by region and industry, the South made relatively an outflow of the service industry and an inflow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 North made an outflow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n inflow of the service industry. Third, in the intra-EU direct investment flows by manufacturing industry, the North concentrated in the petro-chemistry, metal-machinery and agro-food industry, however, the South which have relatively weak competitiveness compared to the North tends to show balanced investment patterns in all industries.

**Key words** : EU, Intra-EU direct investment, The North and the South, Regionalism

## 1. 서론

### 1) 연구목적

냉전기간 중 지역간 유사성(similarity)은 지리적 여건과 의미를 고려치 않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미에 의해 정의되었고 이것은 경제관계를 유도 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리적 의미와 여건이 고려된 경제적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강력한 추세가 되고 있다. 국가간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지리적 요소의 차이성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유럽연합

(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세안(ASEAN) 등 세계적 규모의 지역적 통합체들은 무역 및 투자의 역내 확대를 통해 사실상 지역화(regionalisation) 경향을 확대해 왔다. 또한 기존의 이러한 경제 블록단위들은 경제적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리적으로도 확대를 거듭하면서 경제적 지역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리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심화를 통한 지역화를 현재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시험기를 거쳐 스스로의 원동력을 획득해 가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1952년 유럽의 중심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연

\*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mnc83@hanmail.net)

합은 지리적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낙후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이미 서쪽(1차), 남쪽(2, 3차), 북쪽(4, 5차)으로의 확대과정을 통해 서부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확대를 피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통합을 심화·확대하기 위해 국경통제를 폐지함으로써 회원국간 재화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유럽통화통합(European Monetary Union, EMU)의 출범으로 단일통화의 사용과 금융 및 통화정책의 조화로 단일경제권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확대와 경제통합 심화로 역내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및 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생산비용의 절감이나 시장의 확대로 역내 직접투자는 크게 증대되었다(Safarian, 1985; Yannopoulos, 1991; Dunning 1997). 특히 경제 지리적 여건이 상이한 국가들이 역내로 통합됨에 따라 투자지역 선택의 범위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을 새로운 지역에 입지시키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생산요소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역내 직접투자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지난 50여 년 동안 지리적 확대와 역내시장의 통합을 추진해온 유럽연합은 많은 변화를 보여 왔으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유럽연합의 확대배경에 관한 분석(김동현·이승철, 1997; 이종원, 2001)과 유럽연합 확대에 따른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직접투자 전략과 입지분석(홍성훈, 1999; 정성훈, 2001; Moon, 2001) 그리고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정책 분석(윤영득, 1996; 최진우, 1998)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시장통합에 따른 역내 직접투자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 단일시장 형성 이후 유럽연합 역내 직접투자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우선 유럽연합의 확대과정과 이에 따른 경제 지리적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통합 이후 유럽연합 역내 직접투자 흐름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국가군(國家群)별, 회원국별 직접투자 흐름에는 어떤 차이성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산업별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은 국가군별,

회원국별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직접투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매우 불충분하므로 단일시장 통합에 따른 회원국들의 직접투자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직접투자는 유량개념(flow)으로 직접투자량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년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투자 기업의 수와 그 지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실행한 기업의 입지이동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도 간의 자본 흐름량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기간 동안 유량자본을 누계한 누적 유량자본(Cumulative Flow)을 이용하였다<sup>1)</sup>.

시장통합에 따른 유럽연합 역내 회원국간의 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시기를 통합 이전(1984~1992년)과 통합이후(1993~1999년)로 구분한 후,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회원국들의 직접투자를 누계한 누적 유량자본을 가지고 직접투자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점진적인 확대에 따라 분석 대상의 회원국은 통합이전에는 12개국(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이 통합이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포함된 15개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자료의 불충분으로 분석대상의 회원국이 한정되었다. 그리고 경제 지리적 여건의 차이에 따른 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은 경제적 요소의 차이에 따라 북(the North) 유럽연합국가군(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과 남(the South) 유럽연합국가군(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유럽연합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합이전(1984~1992년)에는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1996(불어판)이며, 통합이후(1993~1999)에는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2001'을 이용하였다. 그밖에 'Eurostat yearbook 2001, 2002'를 보충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불충분한 통계자료로 분석의 범위가 국가 수준에 한정되어 있으며, 경제통합에 따라 나타난 기업의 입지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 한정된 연구임을 밝혀둔다.

## 2. 유럽연합의 확대과정과 경제 지리적 공간

유럽연합은 전후 독일의 석탄과 철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유럽적 발상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1952년 6개국(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참여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창설됨으로서 유럽연합의 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발전과 원자력에너지의 공동개발을 위해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또 다시 창설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들 기구는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되어 성공적

으로 운영되었다. 1973년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3개국(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1차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1981년 그리스(2차 확대),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3차 확대), 1990년 통독으로 인한 동독(4차 확대),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5차 확대)가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2003년 현재 유럽연합은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중·동부유럽국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경제 지리적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의 지리적 영역은 1차 확대를 통해 서쪽으로, 2·3차 확대를 통해 남쪽으로, 4·5차 확대를 통해 북쪽을 확대되면서 서부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였으며, 향후 유럽연합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중·동부유럽 국가들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의 개념이 개방된 상태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sup>2)</sup>

확대된 유럽연합에는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GDP 수준을 보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부터 2천억 달러 미만의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

표 1.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제적 요소(2002년)

주 : \*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포함.  
자료 : <http://europa.eu.int>

어 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비, 실업률, 산업별 GDP구성,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적 요소에 있어서도 회원국간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별 1인당 GDP에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산업별 GDP 구성에 있어서도 위 국가들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1차산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5개국을 남(the South) 유럽연합국가군으로 나머지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10개은 북(the North) 유럽연합국가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비록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물적, 인적, 자본이동의 자유가 현실화됨으로써 노동, 자본, 경영 및 노하우 등의 이동성이 대폭적으로 증대되어 기업은 더 이상 특정국가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회원국마다 시장규모와 생산요소의 가용성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 선택은 개별국가나 지역의 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수익기대가 가장 큰 지역으로 기존 투자의 재 입지와 새로운 투자의 입지가 선택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 남 유럽연합국가군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와 낮은 임금수준, 저렴한 지가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고도로 산업화된 북 유럽연합국가군은 넓은 시장규모와 높은 생산요소비용으로 서비스산업과 지식집약적인 첨단기술 산업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남(주변부 국가)-북(중심부 국가)의 경제 지리적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구조는 회원국간 상호보완성을 심화시켜 무역 및 직접투자의 역내 통합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유럽연합 내의 남-북 관계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중·동부유럽 지역의 저렴한 생산요소비용에 의한 동-북 또는 남-북-동으로 이어지는 기업활동의 새로운 공간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3. 유럽연합 형성과 투자자본 이동에 관한 논의의 쟁점

유럽연합의 지역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심화 확대 목적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유럽의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지니게 하는데 있다. 유럽연합 내에는 지역간 불균등한 경제지리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형성과 투자자본 이동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오고 있다.

첫째는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으로 인한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주변부 국가들은 교통·통신망, 전기·가스 시설 등의 하부구조의 발달은 낮으나,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중심부 국가 기업의 자본을 유인하게 되며, 또한 고임금체계의 중심부 국가 기업은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해 주변부 국가에 투자하게 된다. 그 결과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게 되고, 주변부 국가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또는 생산공정의 투자가 증가되고 중심부 국가에서는 이들 산업의 공동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이와 반대로 자본의 이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가 제거될 경우, 자본은 고도의 산업화된 중심부 국가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Leonardi, 1993; Armstrong, 1995; Keating and Hooghe, 1996). 중심부 국가의 넓은 소비시장과 잘 발달된 하부구조, 질적인 노동력, 집적경제, 풍부한 자본시장 등의 우월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투자자본이 중심부 국가에 집중되고, 주변부국가는 외부경제의 부제로 인한 낮은 경쟁력과 숙련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더욱이 시장통합으로 인한 생산요소, 특히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주변부 국가의 인적자본의 축적을 더욱 어렵게 하여 자본의 유인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화폐·금융정책 등 거시적인 경제수단의 활용이 제한되어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의 유럽연합의 형성과 자본이동에 관한 논의는 결국 자본이 중심부국가에서 주변부국가로 이동하여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보는 견해와 오히려 중심부국가에 집중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요약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 결과 투자자본의 이동 따라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는지 또는 축소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힌 실증분석은 없는 상태이다.

#### 4. 유럽연합 역내 직접투자 흐름

##### 1) 역내 직접투자 변화

유럽연합의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통합발전이 부진했던 1985년까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역내시장통합계획이 실시된 1986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단일시장이 출범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 65억 ECU에서 2000년 911억 ECU/EURO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하였다<sup>4)</sup>.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급격한 성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외 국가들이 단일시장 형성에 따른

상대적인 차별에 대응하고, 확대된 역내시장을 개발하고,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유럽연합 내 직접투자를 증대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통합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와 생산비용의 절감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증대와 시장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직접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된 비중은 1984~88년 53.0%에서 1988~92년 55.6%, 1993~1996년 58.24%, 1997~2000년 75.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이 심화, 확대됨에 따라 역외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보다는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역내 직접투자 유입이 보다 빠르게 증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 2) 역내 직접투자의 지역적 분포

1993~99년까지 누적 유량자본을 기준으로 역내 총 직접투자 유출·입량 가운데 70% 이상이 벨기에/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연합의 주요 핵심 6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국가군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약 10%의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

그림 1. 유럽연합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그림 2. 역내로 유출된 직접투자 회원국별 분포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리아 등 지리적으로 북부 유럽에 속한 국가군은 약 15%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회원국별, 국가군별 역내 직접투자의 유출·입 분포는 단일시장 형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합 이전(1984~1992년) 역내로 유출된 직접투자의 회원국별 분포는 영국의 점유율이 역내 총 직접투자 유출량의 약 20%로 가장 높았으며, 벨기에/룩셈부르크 14.9%, 독일 14.3%, 프랑스 12.9%, 네덜란드 12.7%, 스페인 11.3%의 순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유출량 분포는 시장통합 이후(1993~1999

년) 영국의 비중이 이전 기간에 비해 약 8% 이상 (19.8→28.1%) 증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스페인 7.6%(11.2→3.6%), 벨기에/룩셈부르크 3.7%(14.9→11.2), 프랑스 2.8% (11.2→8.5%), 독일 2.3%(14.3→12.0%) 감소하였다. 즉 통합이전에는 영국, 벨기에/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연합 중심국들에 의해 역내회원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시장통합 이후 영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하였다. 또한 통합이후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의 주요 주도국들의 역내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라 북 유럽연합

그림 3. 역내에서 유입된 직접투자의 회원국별 분포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국가군 대 남 유럽연합국가군의 점유율은 1984~92년 74.9% 대 25.1%에서 1993~1999년 88.2% 대 11.8%로 그 격차 크게 확대되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입된 직접투자의 회원국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1993~1999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유입된 전체 유량자본의 누계(Cumulative Flow)에서 독일로 유입된 비율은 약 23%로 회원국들 중 가장 높으며, 영국(15.6%), 프랑스(14.3%), 네덜란드(12.7%), 벨기에/룩셈부르크(11.9%), 이탈리아(4.1%) 순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역내 직접투자의 회원국별 분포는 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이전(1984~1992년)과 비교하여 독일 3.9%(19.5→23.4%), 벨기에/룩셈부르크 2.0%(10.0%→12.0%) 증가하였으나, 프랑스 8.6%(22.9→14.3%), 네덜란드 5.3%(18.0→12.7%), 영국 2.7%(19.5→15.6%) 감소하였다. 즉 통합이전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역내로 유출된 직접투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의 중심 국으로 비교적 고르게 유입되었으나, 시장통합 이후 독일과 벨기에/룩셈부르크로 많은 역내 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국가군별 유입점유율 비교에서는 북 유럽연합국가군으로의 유입 비중이 1984~1992년 91.4%에서 1993~1999년 91.0%로 소폭 축소된 반면에 남 유럽연합국가군으로의 유입 비중은 8.6%에서 9.0%로 약간 확대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출범 이후 남 유럽연합국가로 투자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유럽연합 역내 직접투자 유출·입은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에서 유출된 투자가 양호한 경제적 환경을 지닌 이들 국가로 집중 유입되었다. 시장통합 이후 역내로의 투자유출은 북 유럽연합국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었으며 역내로부터의 유입은 남 유럽연합국가로 확대되었다. 회원국별로는 영국과 독일이 역내 직접투자 유출·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시장통합 이후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로 최대 유출국이 되었으며, 독일은 역내 직접투자의 최대 유입국으로 변화되었다<sup>5)</sup>. 그리고 벨기에/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프랑스도 여전히 높은 유출·입 비중을 보이고 있다.

### 3) 회원국별 직접투자의 역내 의존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직접투자 유출·입은 회원국에 대해 이루어진 역내 유출·입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 회원국들에 대한 역외 유출·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총 해외 직접투자 유출 중 유럽연합 역내로의 유출비중은 통합이전(1984~1992년) 50.4%, 통합이후(1993~1999년) 50.8%로 단일시장 이전과 이후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sup>6)</sup>. 그러나 국가군 별 역내로의 유출 비중은 북 유럽연합 국가군(52.1%)이 남 유럽연합 국가군(39.7%)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통합 이전 기간에 비해 북 유럽국가군의 역내 유출 비중은 상승한 반면(49.4→52.1%) 남 유럽연합군(58.3→39.7%)은 감소를 보였다.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주로 역내 회원국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로는 벨기에/룩셈부르크(78.4%), 덴마크(67.5%), 이탈리아(63.6%), 네덜란드(56.6%) 등이며 이들 국가의 역내에 대한 유출 비중은 이전 기간에 비해 확대되었다. 반면에 독일(48.9%), 포르투갈(46.8%), 영국(33.0%), 스페인(25.3%)은 역외 유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며,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역외 유출비중이 단일시장 형성 이후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은 유럽연합 출범 이후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 유출 비중이 18.9%에서 33.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영국, 벨기에/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시장통합 이후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가시킨 반면에 독일은 미국 및 동부 유럽국가 등 역외에 대한 투자를, 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허약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시장통합 이후 문화적·역사적 유대가 높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통합이전(1984~1992년) 54.7%에서 통합이후(1993~1999년) 6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연합 역내 회원국 중에서도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시장통합이후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된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탈리아(54.2→75.7%)와 덴마크(36.9→60.9%)는 높은 증가를 보였다. 국가군별로 남 유럽연합 국가군(77.3%)이 북 유럽연합국가군(65.4%)

그림 4. 회원국별 직접투자의 역내 유출·입 의존도

주 : 1984~92년의 '북'은 벨/룩,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1993~99년의 '남'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기준으로 함.  
포르투갈은 1993~98년 기간임.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에 비해 높았으며, 전 기간(1984~92) 대비 증가폭은 두 그룹 모두 약 10%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주로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국가는 벨기에/룩셈부르크(80.5%), 스페인(79.9%), 이탈리아(75.7%), 프랑스(75.1%), 독일(69.3%) 등이며, 포르투갈(62.6%), 덴마크(60.9%), 네덜란드(56.2%), 영국(31.0%) 등은 상대적으로 역

내 회원국으로부터 낮은 유입 비중을 보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영국의 경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중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유입이 높기 때문이며,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국가들로부터의 유입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5. 회원국별 주요 5개국<sup>1)</sup>에 대한 직접투자 유출·입 비중

주 : 1) 각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 유출·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5개국을 의미함

2) 1984~95년은 EU-12개국, 1993~99년은 EU-15개국 기준임

3) 프랑스와 스웨덴은 1993~98년까지임.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4) 회원국간 직접투자 흐름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 총 직접투자 유출·입의 3/4 이상이 벨기에/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연합의 주요 핵심 6개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일시장 출범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6개국이 전체 회원국의 역내 총 직접투자 유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합이전(1984~92년) 73.7%에서 통합이후(1993~99년) 73.8%로, 전체 회원국의 역내 총 직접투자 유입에서의 점유율은 83.2%에서 84.8%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장통합 이전과 이후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 유출·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 보인 주요 5개국에 대한 총 비중의 비교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직접투자 유출의 경우 스페인(79.7→97.8%), 영국(90.2→95.7%), 프랑스(84.8→93.9%), 독일(79.2→93.7%), 덴마크(82.9→92.6%)는 전 기간(1984~92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벨기에/룩셈부르크(95.4→92.3%), 포르투갈(100.0→92.0%), 네덜란드(92.9→87.5%), 이탈리아(89.5→79.8%)는 감소하였다. 직접

투자 유입의 경우 영국(90.3→98.3%) 벨기에/룩셈부르크(89.5→97.1%), 독일(91.5→97.0%)은 상승하였으나 네덜란드(96.4→93.4%), 이탈리아(98.5→93.1%), 프랑스(97.6→89.7%), 포르투갈(90.4→88.6%), 덴마크(100.0→84.1%), 스페인(91.4→83.9%)은 감소하였다. 이상에서 영국과 독일은 역내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유출·입을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역내 투자 대상국 및 역내 투자 유입국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의 유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북 유럽연합국가군인 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의 경우 영국이 최대 투자 대상지로 역내에 대한 총 투자의 약 30~60%를 투자하고 있으며, 프랑스 및 벨기에/룩셈부르크가 그 다음의 주요 투자지역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의 최대 투자대상지역은 시장통합 이전 영국에서 단일시장 출범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로 투자지역이 변화되었다. 영국은 통합 이전에는 프랑스에 대한 투자가 역내에 대한 전체 투자 가운데 약 1/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통합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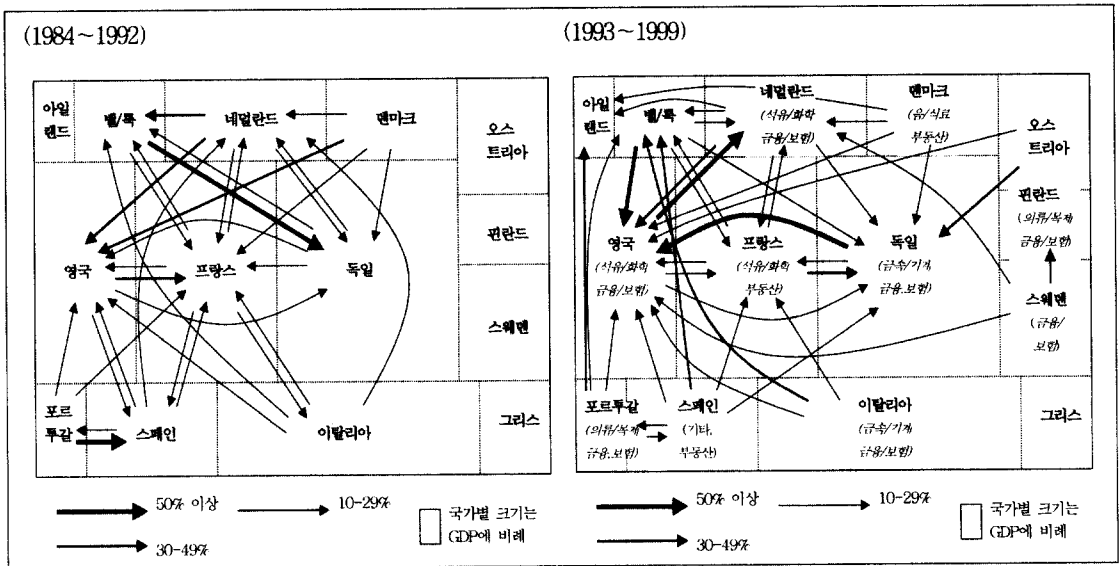


그림 6.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 주요 유출지역

주 : 1) 1984-1992년은 EU-12개국, 1993-1999년은 EU-15개국 임.  
 2) 각 회원국의 역내 회원국에 대한 직접투자 유출·입 가운데 10% 이상의 비중을 갖는 국가만을 고려함, 그리고 업종별 직접투자 유출·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투자비중을 지닌 업종만을 고려함.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후에는 전체 역내 투자의 약 2/3가 네덜란드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남 유럽연합국가군에 속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통합이전 인접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통합이후 벨기에/룩셈부르크로 최대투자지역이 변화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그 다음의 투자지역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은 인접국가인 독일과 핀란드에 대한 투자가 각 전체 역내투자의 약 35%와 45%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국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내 유입국은 유럽연합 출범 이후 영국과 독일의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대부분 회원국의 직접투자 역내 유입국이 프랑스와 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 독일과 영국으로 변경되었다. 유럽연합 출범 이전(1984-92년) 프랑스로부터 가장 많은 역내 직접투자 유입을 보였던 벨기에/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는 시장통합 이후(1993-99년) 영국 또는 독일로 최대 투자유입국이 변화되었으며, 벨기에/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과 이탈리아는 프랑스에서 독일로 각 각 역내 최대 직접투자 유입지역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벨기에/룩셈부르크에서 독일로, 포

르투갈은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각 각 최대 투자 유입지역이 변화되었다. 독일은 프랑스가 역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원천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국으로부터의 유입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프랑스의 역내 직접투자 유입국은 통합이전, 이후 별 차이 없이 영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룩셈부르크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스웨덴은 영국에서, 핀란드는 스웨덴에서 전체 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1/2 이상을 유입하고 있다.

이상에서 유럽연합 회원국간 직접투자 유출·입은 유럽연합 핵심국가의 점유율에는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북 유럽연합국가군의 역내 투자 대상지역은 북 유럽연합국가, 특히 영국과 독일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 유럽연합국가군은 인접 남 유럽연합국가에서 북 유럽연합국가 특히, 벨기에/룩셈부르크로 투자지역이 이전되었다. 직접투자의 역내 유입지역은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영국과 독일의 역내 직접투자의 확대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의 유입이 크게 증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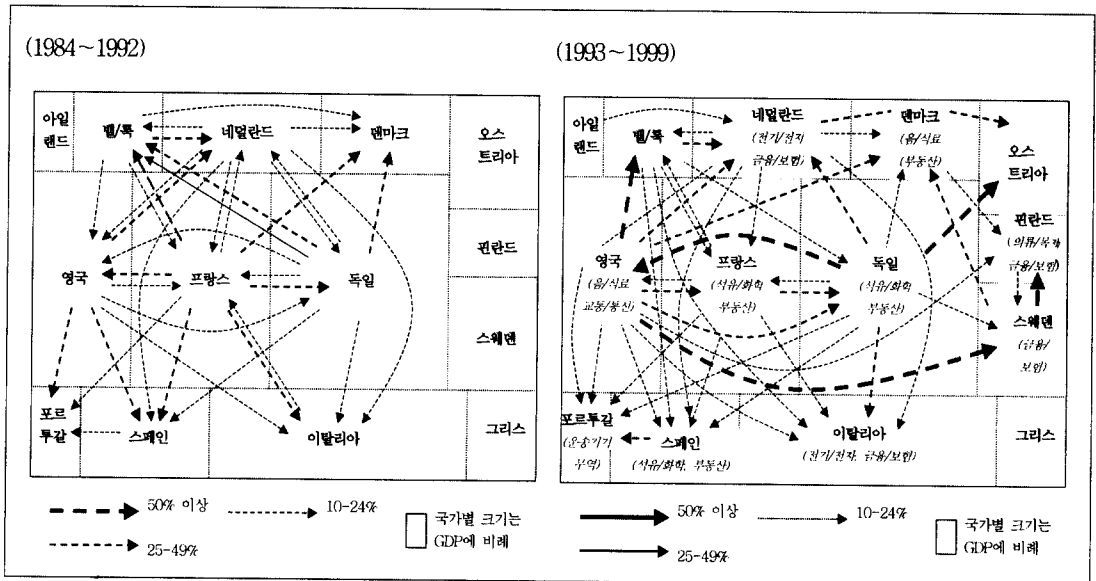


그림 7.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의 주요 유입지역

주 : 그림 6과 동일.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 5. 산업별 역내 직접투자 흐름

### 1) 산업별 역내 직접투자

유럽연합 회원국간 역내 총 직접투자 유출·입의 98% 이상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일시장 형성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회원국에서 역내로 유출된 총 직접투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1984~92년 33.4% 대 63.8%에서 1993~99년 37.1%대 61.9%로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역내에서 회원국으로 유입된 총 직접투자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은 27.4%에서 30.8%로 3.4%가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업은 66.9%에서 68.6%로 1.7%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통합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입지선택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부문에 많은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산업별 역내 직접투자 유출·입 분포는 총 역내 투자 유출·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회원국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회원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통합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한 회원국과 서비스업의 비

중이 증가한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1993~99년까지의 유량자본 누계로 역내로 유출된 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유럽연합 전체 비중(3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국으로는 영국(59.2%), 핀란드(53.9%), 독일(39.9%)이며, 시장통합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한 국가로는 영국(28.5→59.2%), 이탈리아(11.2→23.7%), 스페인(20.7→25.4%)등 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유럽연합 전체 비중(61.9%)에 비해 현저히 높은 회원국으로는 포르투갈(90.0%), 프랑스(75.7%), 스페인(72.8%) 등이며, 유럽연합 출범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회원국은 포르투갈(70.6→90.0%), 프랑스(59.5→75.7%), 네덜란드(51.1→64.2%), 독일(55.3→61.5%)등 이다.

국가군별로는 북 유럽연합국가군(40.9%)이 남 유럽연합국가군(23.6%)에 비해 제조업 부문에 더 많은 투자 집중을 보였으며, 시장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북 유럽연합 국가군의 제조업 비중(30.5→40.9%)이 남 유럽연합국가군(17.9→2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되었다. 서비스업은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 유럽연합국가군(70.6%)이 북 유럽연합국가군(5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통합 이전에 비해 두 그룹 모두 제조업중의 비중 증가

그림 8. 회원국별 역내 유출 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주 : 통계는 회원국별 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1) EU 전체,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은 84~92년, 덴마크는 85~92년, 독일은 86~92년, 이탈리아는 90~92년 임.

2)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은 93~98년, 나머지 회원국은 93~99년 임.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에 따라 각각 79.4%에서 70.6%와 67.9%에서 58.6%로 비슷한 비중 감소를 보였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산업별 역내 직접투자 유출은 제조업의 경우 시장통합 이후 역내 직접투자를 확대해 온 영국과 독일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제조업의 역내 투자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단일시장 형성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제조업부분의 역내투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북 유럽연합 국가들은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경쟁력을 지닌 북 유럽연합국가군은 남 유럽연합국가군에 비해 제조업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확대시켰다.

시장통합 이후(1993~99년)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된 총 직접투자에서 제조업부분의 비중이 유럽연합 전체(30.4%)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국은 스페인(40.0%), 이탈리아(34.6%), 독일(33.2%)이며 포르투갈은 1996년 이후 제조업분야에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철수에 따라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1993~95년 역내 총 직접투자 유입에서 제조업 비중은 33.6%에 달하였다.

시장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제조업부분의 비중이 증가한 회원국으로는 독일(4.4→33.2%), 이탈리아(8.4→34.6%)와 스페인(36.3→40.0%) 등이며, 독일의 경우 1990년 통독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으로 제조업분야의 역내 직접투자 유입이 저조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출범과 더불어 유럽 최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분야의 직접투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 유럽연합국가군에서의 제조업분야의 직접투자 유입증가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생산비용절감을 위해 이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 유럽연합국가군은 역내 회원국에서 유입된 총 직접투자 중 제조업 비중이 1984~92년 25.8%에서 25.2%로 약간 감소한 반면에 남 유럽연합국가군은 제조업 비중이 31.1%에서 36.2%로 약 5%의 증가 하였다.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된 직접투자 중 서비스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연합 전체(69.1%)에 비해 높은 국가로는 포르투갈(94.7%), 영국(94.1%), 프랑스(80.0%), 네덜란드(72.4%), 덴마크(72.0%) 등이며, 시장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서비스

그림 9. 회원국별 역내 유입 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주 : 통계는 회원국별 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1) EU 전체,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은 84~92년,

덴마크는 85~92년, 독일은 86~91년, 이탈리아는 90~92년 임.

2) 프랑스, 스웨덴은 93~98년, 나머지 회원국은 93~99년 임.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업의 비중이 증가한 회원국은 영국(74.7→94.1%), 포르투갈(79.6→94.7%), 네덜란드(51.1→72.4%), 덴마크(53.1→72.0%), 프랑스(74.3→80.0%) 등으로 포르투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북 유럽연합국가군에 속한 회원국들이다. 국가군별로는 남 유럽연합국가군은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된 총 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1984~92년 66.2%에서 61.8%로 감소를 보이는데 반해 북 유럽연합국가군은 서비스업 비중이 통합이전 73.9%에서 통합 이후 75.5%로 소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상을 통해, 역내 회원국들의 산업별 역내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은 남 유럽연합국가들은 북 유럽연합국가에 비해 제조업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통합 이후 그 비중은 확대되었다. 반면에 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비중은 통합이후 증가하였다.

## 2) 서비스업종별 역내 직접투자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서비스업으로 1993

~99년 유량자본 누계기준으로 역내 총 직접투자 유출의 약 62%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 가운데 높은 투자를 보인 업종은 역내 유출의 경우 금융·보험업(36.2%)과 부동산·기업서비스업(23.6%), 무역업(10.3%) 순이며, 역내 유입의 경우 부동산·기업서비스업(31.9%)과 금융·보험업(24.2%), 교통·통신(11.3%) 분야 순으로 투자되었다.

회원국의 서비스업종별 역내 회원국에 대한 투자유출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금융·보험과 부동산·기업서비스부분에 집중되었으나 회원국별 투자업종에는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업종의 역내로의 투자유출 가운데 금융·보험업종에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보인 국가로는 이탈리아 72.7%, 네덜란드 56.0%, 포르투갈 39.3%, 영국 37.2%, 독일 36.2% 등이며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는 부동산 및 기업서비스업에 각각 44.6%, 37.6%, 36.0%로 가장 많은 역내 투자를 하였다.

회원국의 서비스업종별 역내 투자유입 역시 금융·보험과 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에 높은 투자 집중을 보였으나 회원국별로는 역내 투자유출과는 다른 업종에 대한 유입구조를 보였다. 독일, 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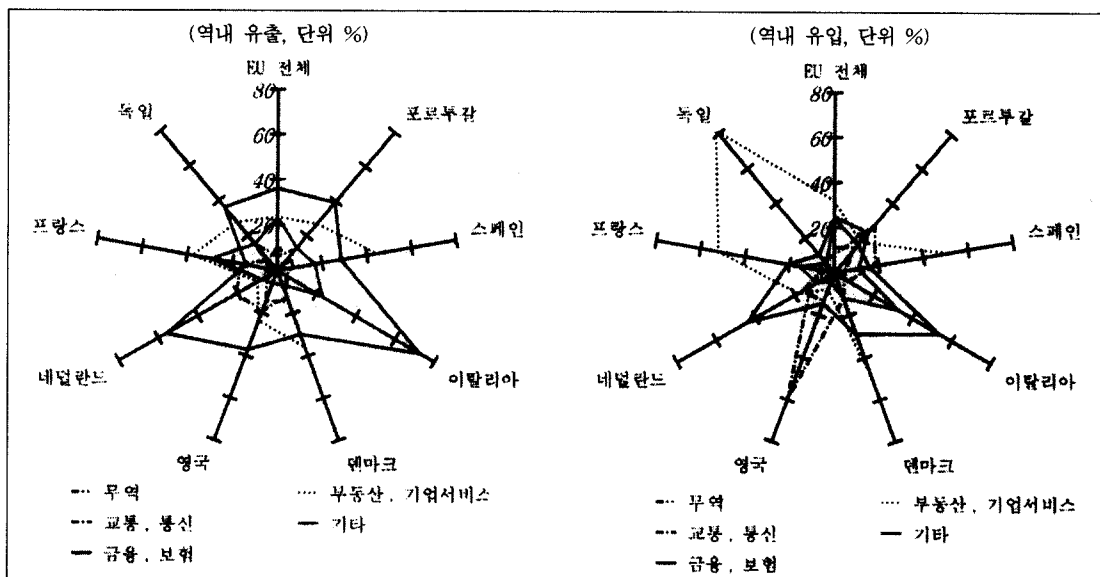


그림 10.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 서비스업종별 분포(1993~99년)

주 : 역내 유출·입에서 프랑스, 포르투갈은 93~98년 임.

자료 :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스, 스페인, 덴마크는 부동산 및 기업서비스업종에 역내 총 서비스업종 투자유입의 81.8%, 51.9%, 50.4%, 49.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투자유입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금융·보험업종에 각각 53.8%와 44.2%, 영국은 교통·통신업종(60.5%)에, 포르투갈은 무역업종( 28.0%)에 가장 높은 투자유입을 보였다.

즉 유럽연합회원국의 서비스업종별 역내투자 유출·입은 금융·보험업종과 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에 투자집중을 보이면서도 회원국별로는 서로 상이한 업종에 대한 유출·입 구조를 보였다. 독일은 금융·보험업종의 역내 투자유출과 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에 대한 높은 역내 투자 유입을, 프랑스와 덴마크, 스페인은 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의 역내 투자 유출·입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금융·보험업의 역내 투자 유출·입을 보였다. 그리고 영국은 금융·보험업의 역내 투자와 교통·통신업의 역내유입을, 포르투갈은 금융·보험업의 역내 투자유출과 무역업종에 대한 역내 유입이 이루어졌다.

3)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투자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 투자 유출·입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업종은 석유·화학업종으로 1993~99년 유량자본 누계 기준으로 제조업부문의 역내 총 유출의 46.8%와 역내 총 유입의 53.6%를 점하였다. 그 밖에 역내 유출의 경우 금속·기계(19.1%), 음·식료(8.7%), 의류·목재(7.5%), 역내 유입의 경우에는 금속·기계(11.6%), 음·식료(10.2%), 의류·목재(9.8%) 순으로 되어 있다.

회원국들의 제조업종별 역내 유출·입 분포는 회원국간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역내 유출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석유·화학업종의 비중이 각각 31.9%, 50.7%, 72.4%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그 밖에 프랑스는 금속·기계(15.4%), 음·식료(13.5%), 네덜란드는 전기·전자(19.0%), 음·식료(12.7%), 영국은 음·식료(14.3%), 금속·기계(5.4%)업종에 높은 투자를 하였다. 독일은 금속·기계(55.6%)업종에 가장 많은 역내 투자를 하였으며 석유·화학(11.6%), 운송기기(7.7%) 순이었다. 덴마크는 전체 제조업종 역내투자 가운데 71.4%가 음·식료 업종에 집중 투자되었으며 석유·화학 10.4%, 금속·기계 9.9%를 차지하였다. 이탈리아, 스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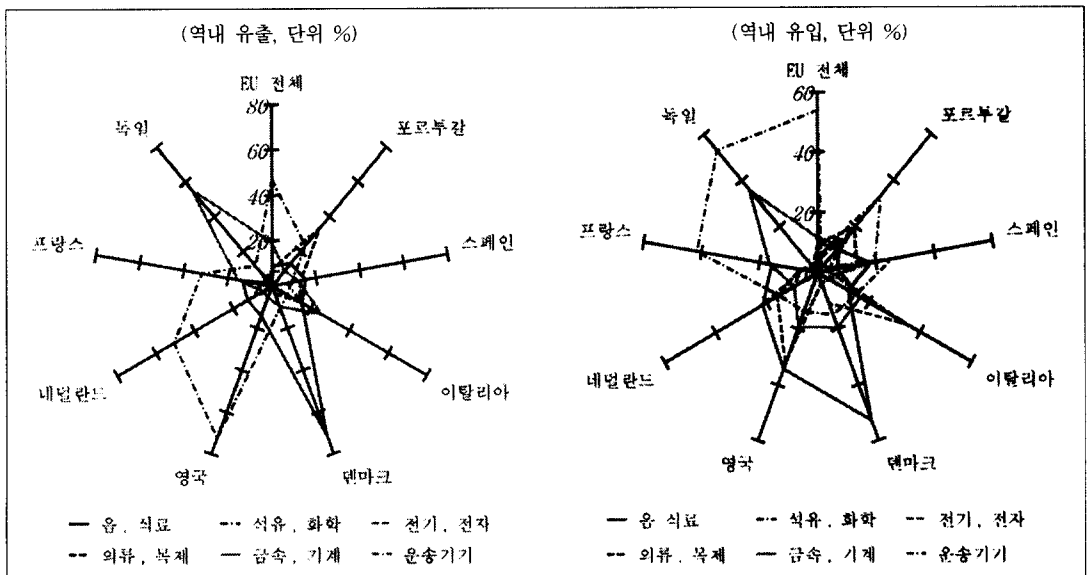


그림 11.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 제조업종별 분포(1993~99년)

주: 역내 유출에서 프랑스 93~98년, 포르투갈 93~97년, 역내 유입에서 프랑스, 이탈리아는 93~98년  
 자료: Eurostat,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I : Data.

인, 포르투갈은 특정업종에 대한 높은 투자 집중은 나타내지 않고 업종별로 고른 투자를 하였으나 회원국마다 상이한 투자분포를 보였다. 이탈리아는 금속·기계(25.8%), 음·식료(15.3%), 운송기기(15.2%), 스페인은 기타 업종(43.7%), 음·식료(15.2%), 의류·목재(13.0%), 포르투갈은 의류·목재(33.7%), 석유·화학(23.2%), 음·식료(13.0%) 순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다.

회원국들의 제조업종별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석유·화학업종이 전체 제조업 유입의 53.0%와 41.6%로 매우 높은 투자유입을 보였으며 금속·기계업종이 36.1%와 16.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영국과 덴마크는 음·식료업종이 각각 34.3%, 52.8%로 가장 높은 유입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영국은 의류·목재(32.4%)와 금속·기계(19.4%), 덴마크는 금속·기계(19.6%)와 석유·화학(15.0)업종 순으로 높은 투자 유입을 보였다. 네덜란드는 전기·전자업종과 음·식료업종이 전체 제조업 유입의 23.2%와 21.6%를 점하였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종별 고른 투자유입을 보인 가운데 이탈리아는 전기·전자업종(35.1%)과 금속·기계(16.7%)업종에, 스페인은 석유·화학업종(25.6%)과 운송기기업종(19.6%)에, 포르투갈은 운송기기업종(33.4%)과 전기·전자업종(18.8%)에 많은 투자유입을 하였다.

이상에서 북 유럽연합국들은 석유·화학, 금속·기계, 음·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 유출·입의 집중을 보인 가운데 회원국별 유출·입 업종에는 차이를 보였다. 남 유럽연합국들은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 역내 투자 유출·입의 집중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종별 고른 투자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남 유럽연합국들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지닌 업종이 없기 때문에 역내 직접투자의 유출·입에서 특정 제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없이 제조업종별로 고른 분포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6. 결론

1952년 유럽의 중심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연합은 그 동안 5차에 걸친 확대과정을 통해 공간적으

로 서쪽(1차), 남쪽(2, 3차), 북쪽(4, 5차)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중·동부유럽 국가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단일 경제권의 기능은 유럽연합의 출범과 유럽통화통합의 출범으로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공간적 확대와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른 역내기업들의 투자지역 선택의 범위의 확대로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직접투자의 지역간의 흐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 단일시장 형성 이후 유럽연합 역내의 직접투자 변화와 회원국별 직접투자 흐름을 국가군별, 국가별, 산업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유럽연합의 역내 직접투자는 시장통합계획이 실시된 1986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단일시장이 출범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시장통합 이후 역내 직접투자의 급격한 성장은 기업의 경쟁력과 양호한 경제적 환경을 확보한 북 유럽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북 유럽연합 국가들의 역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는 남 유럽연합국가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통합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또한 역내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은 남 유럽연합 국가군이 북 유럽연합국가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이전에 비해 두 그룹 모두 높은 증가를 보였다.

회원국별 역내 직접투자 유출·입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룩셈부르크 등 역내 주요 핵심국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유럽연합 출범 이후 역내로의 유출의 경우 영국이, 역내로부터의 유입은 독일이 가장 많은 유출·입 담당하였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이 높은 이들 국가들은 시장통합 이후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에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역내에 대한 투자비중이 감소하였다. 또한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시장통합이후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였다. 회원국간 직접투자 흐름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북 유럽연합국들의 역내 투자 대상지역은 북 유럽연합국에 더욱 집중된 반면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 유럽연합국들은 인접 남 유럽연합국가에서 통합 이후 북 유럽연합국가로 투자지역이 변화되

었다. 그리고 역내 직접투자 유입지역은 영국의 역내 직접투자의 확대에 따라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영국으로부터의 유입이 크게 증가되었다.

산업별 역내 직접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일시장 형성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국가군별로는 북 유럽연합국가군이 남 유럽연합국가군에 비해 제조업 부문에 더 많은 투자 확대를 보였다. 산업별 역내 직접투자 유입은 남 유럽연합국들이 북 유럽연합국에 비해 제조업부문에 높은 유입 비중을 보였으며 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높은 유입비중을 나타내었다. 회원국별로는 시장통합 이후 역내 직접투자를 확대해 온 영국과 독일이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제조업의 역내 투자를 크게 강화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에 집중되었으며 회원국별로는 서로 상이한 업종에 대한 투자유출·입 구조를 보였다. 독일은 금융·보험업종의 역내 투자유출과 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에 대한 높은 역내 투자 유입을, 프랑스와 덴마크, 스페인은 부동산·기업서비스업종의 역내 투자 유출·입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금융·보험업의 역내 투자 유출·입을 보였다. 그리고 영국은 금융·보험업의 역내 투자와 교통·통신업의 역내유입을, 포르투갈은 금융·보험업의 역내 투자유출과 무역업종에 대한 역내 유입이 이루어졌다.

제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석유·화학업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기계, 음·식료, 의류·목제업종 순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국가군과 회원국들의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투자 흐름에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북 유럽연합국들은 석유·화학, 금속·기계, 음·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 집중을 보인 가운데 독일은 금속·기계업종의 역내유출과 석유·화학의 역내유입을, 프랑스는 석유·화학업종의 역내 투자유출·입을, 네덜란드는 석유·화학업종의 투자유출과 전기·전자업종의 투자유입을, 영국은 석유·화학 투자유출과 음·식료의 투자유입을, 그리고 덴마크는 음·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유출·입의 집중을 보였다. 남 유럽연합국들은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 역내 투자

유출·입의 집중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종별 고른 투자경향을 보였다. 즉 남 유럽연합국들은 통합된 시장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지닌 업종이 없기 때문에 역내 직접투자의 유출·입에서 특정 제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없이 제조업종별로 고른 분포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註

- 1) 유럽연합의 경우 누적 유량자본은 貯量資本(Stock)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homsen, 1991). 그리고 분석에 이용된 직접투자자본은 자본의 취득과 기타 자본 거래로 제투자된 이익은 제외하였다.
- 2) 유럽연합은 향후 인접한 북유럽, 중·동유럽 및 지중해 국가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광역 유럽경제권'을 형성하려하고 있다. 이 경우 무엇이 '유럽적(european)'인가 하는 유럽의 정체성(an European identity)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럽적 정체성 문제는 지리적 기준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유럽연합의 동방확대는 어디에서 끝나며, 끝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동방경계는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가입 기준인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구 소련 후계국가들(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및 알바니아 앞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Wild, 2001, - 이규영, 2001, 재인용). 실제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7년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유럽연합의 확대전략인 '아젠다 2000'(Agenda 2000 - For a stronger and wider Union) 통해 유럽연합은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국경에 이르는 데까지 국경확장을 위한 전략을 추구한다고 제안하였다(European Commission, 1997, Agenda 2000)
- 3) 유럽연합이 관세동맹을 시작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해 온 이래 중심부지역(성장지역)과 주변지역(낙후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심부지역과 주변부지역의 구분은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학자마다 달리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1인당 GDP 만을 고려할 경우,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는 EU 평균(EU15=100)보다 높아 남유럽연합국가군 편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직접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입지요인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들 두 국가는 남유럽연합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Moon, N, C., 2001).
- 4) 2000년 말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총 2조 3,762억 달러로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7.6%에 달하고 있으며, 회원국에서 유출된 해외직접투자액은 3조 1,111억 달러로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의 52.0%에 이른다.
- 5)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도 영국, 프랑스 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한 우대정책을 시행하지 않



아 직접투자 입지로서는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독일로 유입된 역내 직접투자는 다른 회원국에 의한 직접투자 이외에도 독일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6)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역내로 유출된 비중은 1984~88년 31.7%에서 1989~92년 62.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시장통합 이후 그 비중은 1993~96년 58.4%, 1997~2000년 55.7%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즉 유럽연합 회원국은 시장통합 이후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역외 국가, 특히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투자를 확대하였다.

## 文 獻

- 김광수, 1994, 유럽통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EU 기업의 대응전략, *경영경제연구*, 13(1), 61-79.
- 김동현·이승철, 1997, 유럽통합의 배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13(1), 61-79.
- 윤영득, 1996, EU의 지역정책, *유럽연구*, 4(1).
- 이규영, 200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대의경제정책연구원*.
- 이종원, 2001, EU 확대의 정치·경제적 이해, *유럽연구*, 13(1), 63-78.
- 정성훈, 2001, 유럽통합의 강화 및 확대과정과 한국 기업의 유럽연합 해외직접투자, *공간과 사회*, 15, 262-281.
- 정홍구, 1998, 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유럽연구*, 8(1), 89-105.
- 최진우, 1998, 세계화와 지역발전정책: 유럽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세정책*, 5(1), 113-132.
- 홍성훈, 1999, 유럽연합국가에 있어 한국 다국적 기업들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4(3), 73-80.
- Armstrong, H.W., 1995, EC Regional Policy, in El-Agraa, (ed.),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 St. Martin, New York, 349-375.
- Blacksell, M. and Williams, A.M.(eds.), 1994, *The European Challenge: Geography and Development in the European Comm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ürgenmeier, B. and Mucchielli, J-L.(eds.), 1991, *Multinationals and Europe 1992*, Routledge, London.
- Croft, S. et al.(eds.), 1999, *The Enlargement of Europ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New York.
- Dunning, J., 1997,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Programme and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Common Markets Studies*, 29(1), 1-30
- European Commission, 1997, *Agenda 2000-for a stronger and wider Union*, Supplement 5/19.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02, *Eurostat yearbook 2001*, Eurostat,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02,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1*, Eurostat,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01, *European Un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yearbook 2000, Vol. I: Analytical Aspects, Vol. II: Data*, Eurostat,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1996,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 l'Union Européenne 1984-1993*, Eurostat, Luxembourg.
- Henderson, K.(eds.), 1999, *Back to Europ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European Union*, UCL Press.
- Keating, M. and Hooghe, L., 1996, By-Passing the Nation State? Regions and the EU Policy Process, in Richardson, J.(ed.), *European Union Power and Policy-Making*, Routledge, London.
- Leonard, R., 1993, Cohesion in the European Community-Illusion or Reality?, *West European Politics*, 16(4), 494-517.
- Oscar, B-R. and Carmen, L-P.,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the Case of Spanish Manufacturing 1986-1992,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17(1), 85-103.
- Phelps, N.A., 1997, *Multinationals and European Integration: trade,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Bristol, London.
- Molle, W. and Morsink, R., 1991, Intra-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Bürgenmeier, B. and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 Mucchielli, J-L. (eds.), *Multinationals and Europe 1992*, Routledge, London.
- Moon, N.C., 2001, *Stratégies d'implantation des firmes coréennes dans l'Union Européenne*, Septentrion, Paris.
- Safarian, A.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Cooklin, D.W. and Courchene, T.J.(eds.), *Canadian Trade at a Crossroads: Options for New International Agreement*, Ontario Economic Council, Toronto.
- Silberston, A. and Raymond, C.P., 1996, *The Changing Industrial Map of Europe*, Macmillan, London.
- The Economist, 2001, *A survey of European Union enlargement*, May 19th 2001.
- Thomsen, S., 1991, *Inward Investment in the European Community, An extract from Panorama of the EC industry 1991*, European Research Associates, Luxembourg.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 년호, Geneva.
- Yannopoulos, G.N., 1991, 199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Community: Evidence from the formative Years, *Seminar paper for the les investissement Directs en Europe*, Louvain-la-Neuve, 22 mars.
- <http://europa.eu.int/comm/eurostat>
- <http://www.unctad.org>

(접수 : 2004. 1. 29, 채택 : 2004. 4. 15)